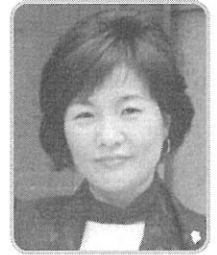


〈특집 : 2012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총결산〉

배합사료산업 결산 총평



김영란
축산신문 취재국장

■ 총결산

2012년 배합사료업계는 희비쌍곡선이 함께 교차했던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FMD 이전으로 가축사육두수의 회복으로 사료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어나는 즐거움이 있었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경영부담을 안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사료안정기금 설치 논란이 축산·사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한해로도 평가되고 있다. 축산단체에서는 ‘설치’를, 사료업체와 정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료안정기금법 제정안을 입법회의 했지만, 특히 정부 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원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료안정기금 설치와 사료곡물비축제도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사료가격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공약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 심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축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옥수수 등 16개 사료원료에 대해서도 무관세로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도 있었는가 하면 사료업체에 지원되는 사료원료구매자금의 확대와 농가에도 사료특별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도 마련됐다.

■ 배합사료 생산량은

2012년도 10월 현재 까지의 국내 총 배



<표> 2012년 배합사료 생산동향 및 전망

(단위 : 톤)

	2012.1~10(A)	2011.1~10(B)	증가율 A/B(%)
양계사료	4,027,247	3,949,056	102.9
양돈사료	4,606,020	3,629,895	126.9
낙농사료	1,106,722	1,021,851	108.3
비육우사료	4,223,919	3,955,693	106.8
기타사료	1,241,674	1,147,928	108.2
계	15,205,582	13,704,423	111.0

합사료 생산량은 1천5백20만5천582톤으로 집계되어 전년 1천3백70만4천423톤보다 무려 11%나 늘어났다(표 참조). 이런 추세대로라면 2012년 총생산량은 1천8백만톤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말 FMD발생에 따른 살처분 영향으로 감소했던 우제류 가축 중 특히 양돈 사육두수가 회복되면서 양돈사료 생산량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축종별 사료생산동향을 보면 전 축종에서 사료생산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이와 같이 2012년 10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3년에도 이처럼 높은 양적성장 추세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육우 사료의 경우 국제 사료가격원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과 도체 등급 기준의 강화로 인한 사육기간의 단축, 2012년도 한우암소 도축 증가 및 인공수정 정액공급량 감소, 송아지 생산 마리수 감소

에다 한우 거세우 및 수소 도축증가에 따른 마리수 감소, 그리고 농가단위에서 배합사료와 대별되는 TMR사료시장 증가로 배합사료 생산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낙농용 배합사료 역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013년에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에서의 생산비 절감형 사양관리, 즉 줄여 먹이기의 급여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5년간의 번식지수를 감안한 송아지 생산두수의 예측과 2산차 이상의 노산우 도태율을 감안하면 약 8천두 내외의 사육두수 감소가 예상되어 2012년 대비 배합사료 생산량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양돈용사료의 경우, 2012년에 사육마리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내년도 배합사료는 금년도에 비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육계용사료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사육마리수 감소와 자체적인 종계감축 등의



영향으로 2013년 2/4분기 중 육계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분기 까지는 증가를 보이거나 이후에는 약보합세가 예상되고 있다.

산란계용사료는 2012년 5월까지의 병아리 입식마리수를 감안할 때 9월~11월 중 계란생산에 가담할 신계군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3년 상반기 까지는 증가추이를 이후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내년도 배합사료 산업은 국제 사료 곡물 가격의 향방과 국내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이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상승세와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소비증가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되면서 배합사료 생산량도 소폭의 역성장을 맞이하겠지만 곡물가격 상승의 장기화와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더블딥(Double-dip) 경제불안이 재현된다면 예상치 못한 상당폭의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제 사료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은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자 한국사료협회가 급기야 미국을 향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 정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측 답변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한

국사료협회가 오죽하면 미국에 이런 서한을 보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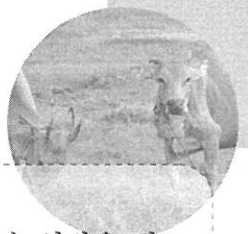
물가당국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인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업체들은 차마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국제 곡물가 상승을 막아 보려는 고육지책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2013년에는 세계 곡물 생산이 2012년보다는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한숨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미국 농무성이 발표하는 낙관적인 수급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인 반응과 러시아의 곡물재고 소진에 따른 곡물수출 중단 가능성, 엘니뇨에 따른 호주의 가뭄지속은 곡가의 재상승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 배합사료산업 전망은

국내 배합사료산업의 경우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95%에 이르고 배합사료 제조경비중 원재료비 비중이 85%에 이르고 있어 국제 원료가격의 상승은 곧 바로 국내 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국제 원료가격의 변동은 통상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료원료 원매가 주로 현물구매(Flat)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결정에서부터 국내 반입까지의 해상운송 기간, 항구



에서의 하역 및 보관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통상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내 사료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축척된 노-하우 때문인지 2012년들어 곡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6월 이전에 통상적인 3~4개월 간격이 아닌 이보다 긴 6~7개월 전의 선도구매를 단행함으로써 제분 등 국내 타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생산원가 상승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3년 초 부터는 2012년 7월 이후의 세계적인 곡곡가의 영양이 그대로 사료가격에 반영되어 상당폭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업체에서는 2013년 초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

